



붉게 피어난 동백꽃 제주4·3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30일 4·3평화공원 내 행불자 묘역에 심어져 있는 동백꽃이 원혼을 위로하듯 붉은 꽃망울을 터트렸다. 강희만기자

## 제주4·3 제73주년 특집 <중> 격동의 한국역사 속 '제주인의 변호인' 박철 변호사

# 억울하게 누명 쓴 도민들 지켜내

4·3 당시 동료 변호사들과 광주교법 118명 무료 변론 6·25전쟁때 납북 행방불명... "역사 재조명 이뤄져야" 아들은 부친 찾겠다 군 입대 험난했던 가족사 면면히

일제강점기와 제주4·3,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는 격동의 한국역사 한 가운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제주사람들의 변호인을 자처한 제주인. 제주도 구좌읍 감녕리 출신 박철(사진) 변호사(1913~1950)의 이야기다. 그는 4·3 당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낯선 땅, 광주법원 재판대에 선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도 빨갱이라는 모욕을 들으면서도 고향사람들을 지켜내려 했던 진정한 법조인이다. 4·3이 발발한지 올해로 73주년이다. 지난 29일 서귀포시에서 만난 박용창(64)씨는 할아버지 박철 변호사를 기억하며 4·3의 의미를 되짚는다. 올해 4·3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며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음양으로 도움을 줬다는 대가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또다른 피해자로서, 역사적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한국인을 변호하는데 힘을 썼고,

해방 이후에는 귀국해 돈 없고 힘없던 남로당 출신들, 죄 없는 4·3사건 수형자들을 무료로 변론해줬다. 그 대가로 6·25전쟁 당시 납북되었는데, 여러 경로로 생사를 확인해 봤지만 납북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정부로부터 조부의 월북이 아닌, 납북 최종 확정 받은 것은 2017년 4월 27일이다. 67년 만의 일이다. 4·3은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아픈 가족사를 남겼다." 서울제주도민회는 2002년 발간한 '서울제주도민백년사'에 박철 변호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서울 종로의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오건일 변호사(납북, 서귀포 남원 위미)와 장공우 등 재경 유지들과 함께 지금의 제주도민회의 모태인 '제주회(濟友會)'라는 친목단체를 발족시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백년사에는 "박철 변호사는 일본 중앙대학 법학부를 졸업,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오사



카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교포의 권익옹호에 힘썼고 해방 후 서울에서 변호사, 국민대 교수, 대동흥업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4·3 사건 관련자 118명이 광주형무소로 이관된 후 같은해 10월 광주지법에서 공판이 열리게 되자 오건일 변호사 등 5명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변호활동을 펼쳤다. 현지에서도 이덕우, 김재천(함덕) 변호사까지 움직여 이 사건을 변론하도록 조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억울한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변호

사보다 정치인을 꿈꾸며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북제주군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 가족의 가장이자 2남4녀중 집안 장손이었던 박철 변호사의 납북 사건은 가족에게 크나큰 그늘을 드리웠다. 박용창씨는 조부의 유훈대로 3대가 독자 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다고 했다. 조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군에 입대한 아버지(박동광)도 군장교를 지내면서 조부의 '납북'이라는 '낙인'으로 결국 소령으로 예편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박용창씨는 "가족과 곳곳에 남겨진 기록들이 할아버지의 굴곡진 삶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4·3 희생자와 유가족 이외에도 그 뒤편에서 저희 할아버지처럼 이들을 돕고 지원했던 주변의 이야기도 새롭게 조명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내 4·3관련 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박철 변호사에 대한 기록은 제주출신이라는 내용도 없이 '제주회' 결정에 앞장섰다는 기록만 한줄 남아 있을 뿐이다. 역사의 음지에 있는 분들에게 시간을 두고 찬찬히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이다. 백용탁기자 haru@ihalla.com

## 도내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 전수조사

도, 6000여 곳 용도 등 조사  
 안정적 보전·관리대책 마련

제주자치도는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정(6131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으로,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도내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시공 업체를 통해 ▷오염방지를 위한 상

부 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 용도와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수질의 적정성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종료 예정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 안내와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허가기간 내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50/100 미만인 경우 취수 허가량 조정, 오염방지 시설 개선, 미사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유지는 제외

제주도·환경부 3차례 협의 끝에 배제 가닥  
 임업인 국유림 내 표고버섯 재배 행위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에서 오름과 꽃자왈 지역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척하기로 했다. 3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사항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달말까지 환경부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협의를 통해 우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오름과 꽃자왈 지역 내 사유지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자연공원법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1차산업 행위인 경우 절대보전 지역으로 묶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보존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임업인들의 국유림 내 표고버섯 재배 행위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급하게 공청회를 갖는 것보다는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매달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와 환경부는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km)에 중산간, 꽃자왈, 추사·우도 해양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km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감안해 공원면적(안)을 303.2km로 축소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환경부가 2018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우도·추사 주민들과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 등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자 제주도는 지난 2019년 6월 5일 환경부에 연구용역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환경부는 같은 달 13일 용역 연기를 결정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성과와 희망」을 제공하는 제주경제의 종합금융리더"

# 제주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 실시 안내

예비창업자 및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21. 4. 7.(수) ~ 4. 8.(목) 10:00 ~ 17:00(12H)
- 대 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장 소 : 제주신용보증재단 강의실(제주시 연북로 33, 4층)
- 신청기간 : 2021. 4. 2.(금) 09:00 ~ 4. 6.(화)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jcgg.or.kr/) 내 교육신청을 통한 선착순 신청

### 교육과정

일시	교육내용	인원	강사	
1일차 4.7.(수)	10:00~12:00	20명	공인중개사 임현구	
	13:00~14:00			상권분석 및 점포계약(2)
	14:00~17:00			소상공인 세무기초
2일차 4.8.(목)	10:00~12:00	20명	경영지도사 김용우	
	13:00~16:00			소상공인 노무관리 기초
	16:00~17:00			신용보증제도란?

### 수료혜택

- ① 재단 보증 심사 시 우대 혜택 제공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해당기업에 한함) 우대 기업 적용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심사 사 가점항목 우대 적용
- ② 교육 수료 시 신청자에 한해 전문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 2회 지원(무료)